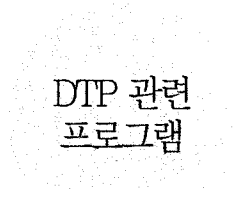


인쇄 관련업계 종사자를 위한 편집의 이해

인쇄라는 과정은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분야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보편적인 출판을 위한 종이 인쇄 과정은 크게 디자인(Design), 프리프레스(Prepress), 프레스(Press), 포스트프레스(Postpress)로 구분할 수 있다. 편집은 디자인 분야에 해당하며 인쇄될 내용(Content)을 만들어 가는 작업에 속한다.

글쓴이 _ 김호문 <컬러편집&출력>저자, 출판제작(편집&디자인) 모임 회장
fashionda@daum.net / 010-3807-2569



매킨토시(MAC) DTP 작업 환경과 Windows(PC) DTP 작업 환경

우리나라에서 인쇄/출판을 위한 DTP 작업은 MAC(특히 퀵 3.3K)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물론 15~20년 전에는 그랬지만, 컴퓨터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10여년 전부터는 MAC 뿐만 아니라 PC에서도 DTP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PostScript 기술의 호환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는 프린팅 관련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애플 컴퓨터에서 만든 매킨토시 컴퓨터에서 DTP 작업이 가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포스트스크립트 기술을 프린트 방식으로 채용했기 때문이다. 포스트스크립트는 해상도가 없는 벡터 방식을 기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만 받쳐주면, 고품질의 출력물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포스트스크립트 기술은 폰트와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도 적용되었다. 즉, 포스트스크립트 해석이 가능한 페이지 레이아웃 프로그램에서 포스트스크립트 방식에 기반을 둔 글꼴(폰트)과 래스터/벡터 이미지를 사용하여 작업하여 최종적인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출력에 사용하였다.

원래 DOS(Disk Operating System) 기반의 PC 환경에서는 각각의 프린터 제조사에서 프린터 드라이버를 직접 만들었으나 GUI 환경에 기반을 둔 Windows라는 운영체제가 나오면서 통합된 프린터 드라이버가 등장했다. 그리고 PC에서 사용 가능한 (DTP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프린터와 같은 출력장치)에서 포스트스크립트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GUI 방식의 운영체제 등장

1992년 매킨토시 컴퓨터용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던 GUI(Graphich User Interface) 방식이 IBM PC용 운영체제에서도 도입되었다. 1992년 발표된 MS Windows 3.1부터 많이 쓰이기 시작하다 1995년 발표된 Windows 95 버전을 거쳐

2001년 발표된 Windows XP에서 정점에 도달하였다. 컴퓨터 운영체제의 사용 방식이 크게 개선되어 매킨토시용 컴퓨터처럼 마우스만으로도 대부분의 작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PC에서도 DTP 작업이 수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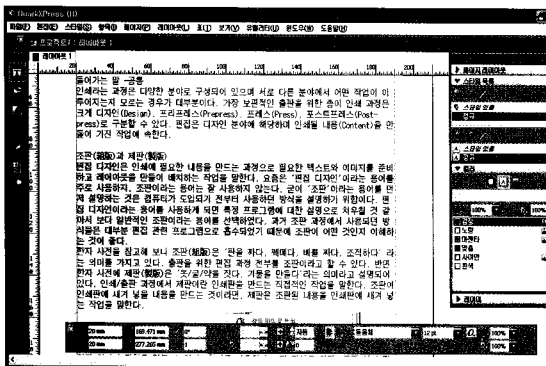


GUI 방식의 운영체제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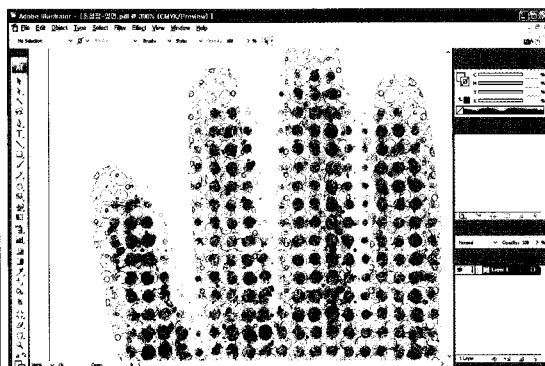
1992년 매킨토시 컴퓨터용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던 GUI(Graphich User Interface) 방식이 IBM PC용 운영체제에서도 도입되었다. 1992년 발표된 MS Windows 3.1부터 많이 쓰이기 시작하다 1995년 발표된 Windows 95 버전을 거쳐 2001년 발표된 Windows XP에서 정점에 도달하였다. 컴퓨터 운영체제의 사용 방식이 크게 개선되어 매킨토시용 컴퓨터처럼 마우스만으로도 대부분의 작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PC에서도 DTP 작업이 수월하게 되었다.

PC용 DTP 관련 프로그램의 등장

DTP 관련 소프트웨어 대부분은 처음에는 매킨토시용 제품으로 출시되었다. 하지만 PC 시장이 점점 넓어짐에 따라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PC(Windows)용으로도 출시되었다. 대표적인 래스터/벡터 그래픽 소프트웨어인 Photoshop, Illustrator뿐만 아니라 페이지 레이아웃 프로그램인 QuarkXPress, PageMaker, InDesign 등도 PC용 제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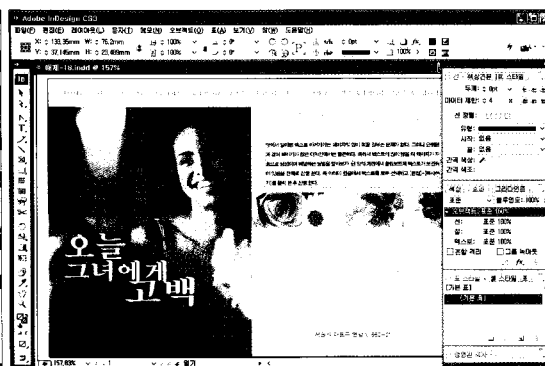
QuarkXPress 8.0 Windows 버전



Illustrator CS3 Windows 버전



Photoshop CS3 Windows 버전



InDesign CS3 Windows 버전

폰트 호환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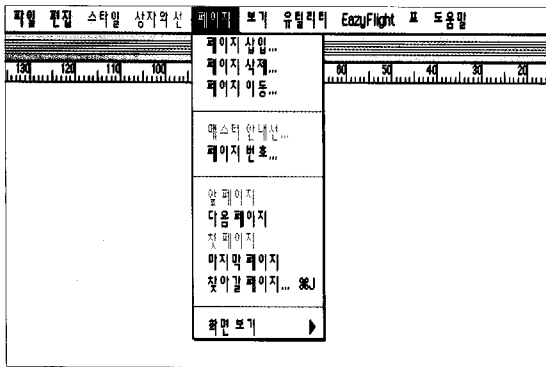
출력용 폰트는 원래 포스트스크립트 형식만 존재하였으나, 애플컴퓨터에서 별도의 벡터 방식인 트루타입(TrueType) 기술을 개발하였다. 트루타입은 IBM 호환 PC용 운영체제인 Windows에서 채택되어 널리 사용되었다. 하지만, Windows용 트루타입과 매킨토시용 트루타입은 서로 호환되지 않았다. 포스트스크립트용 폰트도 매킨토시용만 있었기 PC용은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버전의 트루타입(일명 트루타입 2.0) 형식을 만들어 매킨

서에서 페이지 작업은 가로 길이가 정해져 있고, 세로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은 두루마리 용지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입력한 내용이 정해진 페이지 분량을 넘어서면 그 다음 내용을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긴다. 또는 내용이 차지 않았더라도 강제로 페이지를 나눠 주는 기능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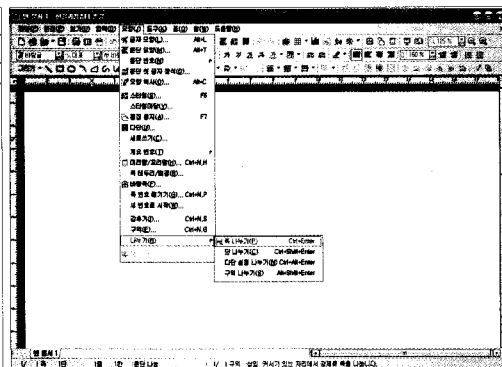
하지만 페이지 레이아웃 프로그램은 다르다. 정해진 페이지 크기를 넘어서는 내용은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는다. 물론 텍스트의 경우에는 설정값에 따라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넘겨 주는 것이 아니다. 즉 워드프로세서가 두루마리 용지를 사용한다면, 페이지 레이아웃 프로그램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여러 개의 낱장을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

두 프로그램 간에 페이지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는 간단한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글과 같은 워드프로세서에는 페이지 단위로 내용을 추가/삭제하는 기능이 없다. 빈 페이지를 추가하려면 페이지 특정 위치에서 페이지 나눔 기능을 두 번 실행해야 한다. 만약 특정 페이지를 삭제하려면 해당 페이지 내용 전체를 블록 설정한 후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페이지 레이아웃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다. 페이지를 관리하는 별도의 메뉴를 제공하기 때문에 페이지 관리가 용이하다. 따라서 워드프로세서와는 달리 8페이지에 위치한 내용 전체를 잘라서 5페이지로 옮기는 등의 작업을 훨씬 간편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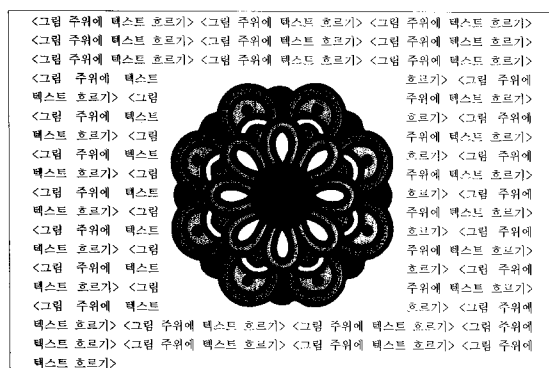


QuarkXPress 3.3K의 페이지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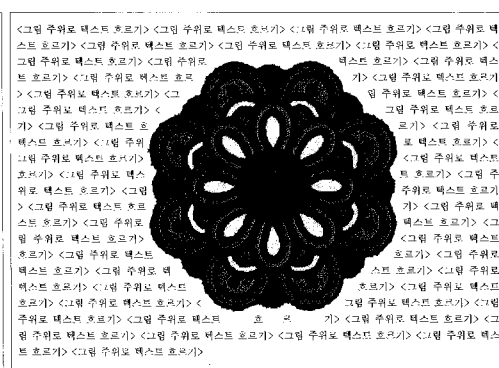


한/글의 쪽 나누기 명령

페이지 레이아웃 프로그램은 모든 입력을 상자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자를 편집하는 기능이 아주 다양하다. 하지만 워드프로세서는 그렇지 못하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텍스트와 그림, 글상자와 같은 다른 오브젝트간의 배치 방법이다. 페이지 레이아웃 프로그램에서는 동일한 영역에 여러 개의 상자를 함께 배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워드프로세서에서는 개체 배치 기능이 미약하다. 특히 그림은 기본적으로 사각형 형태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글 상자와 그림을 같은 영역에 어울려 배치하는 경우 글자가 그림의 빈 공간까지 들어오지 못한다. <끝> ↻



한/글에서 그림과 텍스트의 배치



인디자인에서 그림과 텍스트의 배치